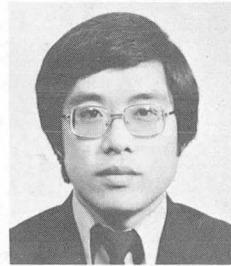


8월 13만원선, 9월이후 상승 예상

“

돼지값이 6월중순이후 하락되었고, 이런 추세는 8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8월은 공급량의 부족과 수요량의 감소 등으로 비육돈 두당 13만원대에서 보합세가 예상되며, 9월 초순에 약간 상승세를 보이다가 11월까지 약보합세가 예상된다.

”



함 병 은
(본회 지도부)

양돈경기동향

'90년 6~7월 돼지값은 강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와같이 돼지값이 하락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루한 장마와 더위 및 돼지고기 수입 그리고 중금속 검출 보도에 따라 돈육소비가 급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전국 도매시장의 거래시황을 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90년 6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경락된 마리수는 19만8천8백37두로서 1년전보다 4만8천9백2두(19.9%)가 감소된 반면, 도매가격(지육 kg당)은 2천3백97원으로 1년전의 1천5백85원보다 8백12원(51.2%)이 상승되었고, 최고시세는 6월 23일에 2천7백54원, 최저시세는 7월

14일에 2천1백15원으로 거래되었다.

인천지역의 경우 평균 경락가격은 2천5백4원으로 최고시세는 2천8백34원(6월 23일), 최저시세는 2천2백70원(7월 18일)이며, 이는 1년전의 1천6백41원과 비교해서 8백63원(52.6%)이 상승되었으나, 경락두수는 2만7천2백70두로 1년전 동기의 3만5천7백54두보다 8천4백84두(23.7%)가 감소되었다.

대구지역의 경우에는 2만5천5백두가 경락되었고, 도매시장의 가격은 최고 2천9백41원(6월 23일), 최저 2천2백60원(7월 26일) 그리고 평균은 2천5백70원으로 1년전 동기보다 경락두수는 9천4백69두(27.1%)가 감소되었으나 도매가격은 9백44원(58.1%)이 상승되었다.

부산의 경우 경락마리수는 6만3천3백71두로서 전년 동기의 7만6백39두보다 7천2백68두(10.3

〈표1〉 '90년 6월 양돈사료 생산량 (단위: 천호)

구 분	'90.6(A)	'90.5(B)	'89.6(C)	동 락(%)	
				A/B	A/C
젓먹이용	80,560	82,744	66,020	-2.6	22.0
육성비육용	122,696	126,564	185,799	-3.1	-34.0
모 돈 용	67,541	76,142	91,335	-11.3	-26.1
계	270,990	285,694	345,035	-5.2	-21.5

〈표2〉 '90년 6월 돼지사육두수 (단위: 천두, 천호)

구 분	총두수	2개월미만	2~4개월	4~6개월	호수
'90. 6(A)	4,251	1,315	1,514	774	139
'89. 6(B)	5,372	1,744	1,883	889	282
A-B	-1,121	-429	-369	-115	-93
출하예정월	-	9~10	8~9	6~8	-

%)가 역시 감소되었으나, 지육도매가격은 9백59원(61.4%)이 상승되었고, 이중 최고시세는 6월 23일에 2천9백58원, 최저시세는 7월 14일에 2천56원을 나타냈다.

또한 광주지역은 총 경락마리수가 9천1백80두로 1년전 동기보다 3천3백81두(26.9%)가 감소된 반면, 평균가격은 2천2백12원으로 전년 동기의 1천3백16원보다 8백96원(68.1%)이 상승되었고, 최고가격은 7월 7일의 2천9백43원, 최저시세는 6월 23일의 1천9백35원을 나타냈다.

한편 '90년 6월의 양돈사료 생산량은 27만9백90톤으로 1년전보다 7만4천45톤(21.5%)이 줄었고, 이중 모돈용과 육성비육용은 34.0%, 26.1%가 각각 감소되었으나 젓먹이용사료는 22.0%가 늘어났다.

또한 '90년 6월 현재 사육두수는 4백25만1천두로서 3개월전보다는 5만2천두(1.2%)가 1년전보다는 1백12만1천두(20.9%)가 감소되었고, 이중 모돈수는 59만4천두로서 1년전보다 23.8%가 줄었다.

또한 '90년 6월의 돼지고기 수출물량은 3백24톤, 금액으로는 2백3천불이고, 둔가하락에 따른

육가공 원료돈육의 수입실적은 7백66톤이며, 이중 19톤에서 설파메타진이 검출되어 대만으로 되돌려 보냈다.

양돈경기 전망

돼지값이 6월중순이후 하락되었고 이런 추세는 8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그 이유는 7~8월은 무더위가 계속되고, 봄철 입식된 돼지의 출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작년의 11월에 1만5천원대하던 자돈가격이 봄철에는 3~4만원대에 거래되었고, 이는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5개월후인 7~8월의 출하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한편 7~8월은 1년중 가장 무더운 날씨가 계속돼 돼지고기 수요가 가장 적은 계절이기 때문이다.

특히 돼지고기 수입과 중금속 검출 보도에 따라 수요량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고, 사육농가의 사육심리가 크게 위축돼 직접 새끼를 낳아 사육하는 형태를 탈피하여 자돈을 입식하여 돼지값이 높을 때 판매하는 단기 입식의 형태가 되고 있다. 이와같은 원인은 '90년 6월 현재의 사료생산량을 보면 젓먹이사료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축산관측협의회에 따르면, 모돈두수의 부족과 소규모 양돈농가의 사육규모 감축 및 환경오염 단속강화로 신규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7~8월에는 보합세, 그리고 9월이후에는 상승을 예상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8월은 공급량의 부족과 수요량의 감소 등으로 비육돈 두당 13만원대에서 보합세가 예상되며 9월초순에 약간 상승세를 보이다 11월까지 약보합세가 예상되어진다.